너가 너대로 있지 않고 전부가 더불어 같이 산다

☞ A17면에서 계속

일 내가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것도 또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가 그대로 자기 자불을 알아서 여여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너희들한테는 다 갖추어져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도 다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발견해라." 때로는 "시자야!" 불러서 "예." 그러면 "응, 알았다." 이러곤 고만두고 하는 예전의 선지식도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이 사계절이 오는 거 다 보세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의 스승이자 저의 스승도 됩니다. 하나도 스승 안 되는 게 없는데 마음이 들떠 가지고, 빨리 좀 해 보려고 저기 가서 해 보려고 하고 저기 가서 해 보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들떼기지 그거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무리 좋았던들, 이론이 아무리 좋았던들 그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마음공부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은

질문 : 이제 마음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 나는 항상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모습이…, 노래도 있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요만한 거라도, 법당에 들어와서 일체 모두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 모두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갖춰져야 되거든요. 노래고 예법이고 모든 거를요.

그러니깐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요, 모든 사람하고도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생! 생명은 다 똑같죠? 벌레의 생명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공생이고 모두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같단 얘기예요. 잘하든 못하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공심이고, 공체라는 건 모습은 다르나 체는 다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체가 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도 체가 있으니까 그, 공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 전체가 어떠한 물건이든지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이다 이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움죽거리고 하니까 공용이고, 내 몸으로부터도 더불어 같이 공용이고 또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 주장자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여기에서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리드하고 가는데 어떤 거 먹었을 때 내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에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몸뚱이가 공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는 것도 공식이죠. 그래서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둘 아닌 까닭에 그런 것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진리가 그러해요. 그대로 너가 너대로 있지 않고 전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기 때문에….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질문 :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고생이 끊이지 않고 이제 살 만하다 싶으면 계속 일이 터지고 터지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대체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답변 : 숱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해 놓고 아늑하고 따뜻한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춥고 몰아치는 추운 바람에 쌩쌩하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만 일생을 보낸 사람들은 울안에서 핀 꽃과 같아서 험악한 데 내놓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얼어 죽기 똑 참하고 바람에 쓸려서 뿌리까지 파여서 아주 죽기가 일쑤죠. 그러나 험하게 내버려 던져진 그 어떠한 꽃송이라든가 풀잎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세워 놔도 그건 죽는다 안 죽는다 또는 쓰러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나가 다 생각할 때 작고 크고 그것뿐이지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한 일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들에 같이 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내가 만약에 그릇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담을 그릇이 없었을 텐데…. 그 눈물 한 방울의 그 창고로서 그 그릇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담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퍼내도 바로 줄지 않는 그 그릇을 얻지 않았는가? 그 그릇도 세울 게 없는 것을….'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저한테 보여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릇을 비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바로 나한테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을 겁니다. 바로 내가 아파 보지 않았더라면, 바로 참다운 눈물을 흘려 보지 않았더라면 그 눈물, 그 참다운 눈물, 참눈물을 몰랐을 것이며 그 쓰라림을 아마도 상세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또는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기고 듣고 넘기고 하는 거하고 실천에 옮겨서 그렇게 아주 이어지게, 그 살을 에듯 다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은 실천은 아마 그것은 더없이 자기의 교훈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를 용기를 얻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아하, 그렇게 에어 가는 그 사람네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 배고픔을 같이할 수 있다면 내 이 몸뚱이가 보이지 않고 가루가 된들 어찌 같이 안 하리.' 하고서 나는 거기에서부터 용기를 얻었고, 자면서도 잠이 안 오고 바로 그 궁리, 꿈꾸느라고 밤을 새우기를 수차에,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새웠고, 그래서 가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한참 어느 때나 됐는지도 모르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참답게 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마구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래서 그 참다운 내 주장심이 아주 무서운,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무서운 칼이 아주 연하고 잘 드는 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서 중력을 잃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언제나 내 중심, 그 한 마음 한 점 속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있고 그 일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또 부처님이 돼 봐야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지, 부처님이 되지 않고야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법신의 행을 하며 모든, 즉 말하자면 자비의 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업이고, 네가 한 것이 이렇게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바로 보살행을 못합니다. 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줄 수만 있는 거. 업이 많아서 주지 못한다는 그것도 걸리지 마시란 얘깁니다. 업보가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걸리지 말고, 업에도 걸리지 말고, 그 법에도 걸리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게 업이라면 바로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인간이 되려면

질문 : 불교에서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짐승들이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처님께서 '내 자리 아님이 하나도 없고 또 나 아님이 하나도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생이 다 불성이 없는 것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다 생명이 있고 다 움죽거리고, 식물도 모두가 다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법 도리에는 불성이 있다 없다 그걸 다 떠나서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축생이 있기 이전에, 제가 항상 그러죠. 미생물이 나기 이전은 억겁을 통해서 거쳐 오면서 그 모습 모습, 갖가지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서 화해서 살면서 구르면서 이날 인간이 되기까지 그렇게 어려웠노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순간순간 진화돼서 창조가 되고 하는 그 찰나찰나가, 우리가 금방 마음이 변해서 이 마음이 들고 이 마음 변해서 저 마음이 들듯이 모습도 그렇게 찰나찰나 변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진화돼서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니까 바로 진화율도 커진 거죠.

어느 무신이, 즉 말하자면 어떠한 그 물질적이 아닌 어느 귀신이 사람의 형체를 보고야 자기가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옛날뿐만 아니라 어떠한 짐승이라도 사람의 탈을 봐야만이 진화된다고 합니다. 또 백 년을 묵은 구렁이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타고 나야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사람의 모습을 타고 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사는 데 내려와서 간장을 먹고 사람을 보고, 숨어서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백 년을 또 공부해야 사람의 모습으로서 탄생을 한다 합니다. 백 년이 꼭 백 년이 아니라 한순간도 백 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날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나 축생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을 보고서 인간이 하는 대로 눈여겨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 짐승들은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연방 굴러야만 하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화되는 그러한 축생이나 짐승들, 즉 말하자면 소, 말, 돼지, 개 이런 거는 사람 될 확률이 상당히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소는 조상' 이라고, 사람하고 너무 접촉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개고기도 먹지 마라." 한 것도 개하고 사람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죠. 고양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축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생이 그 사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가 아둔해서 진화가 늦으면 늦는 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떠돌고 떠돌고 떠돌다가 어느 때 한순간 '아! 이 고통 때문에 난 못 견디겠다. 저 사람들은 우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의 모습을 갖겠죠. 이 마음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축생을 축생이라고 보지 마라. 사랑하라. 내 생명과 같이 아껴라." 남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알아야지 만약에 그것을 살생을 한다면 곧 살생이 되는 거죠, 죽인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서 그 축생 그 자체도 바로 나 아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도 예전에 억겁을 거쳐 올 당시에 바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축생의 몸을 타고 나서 굴러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축생도 나의 몸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살이라고 하고요. 법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남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몸이 하나도 없고요. 우린 한 번씩은 다 거쳐 왔으니까요. 우리가 높게 이렇게 됐다고 해도 만약에 얕은 게 없다면 높은 게 없듯이 축생이 없다면 큰 짐승들도 없거니와 인간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있다 하면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살림살이요, 진리요,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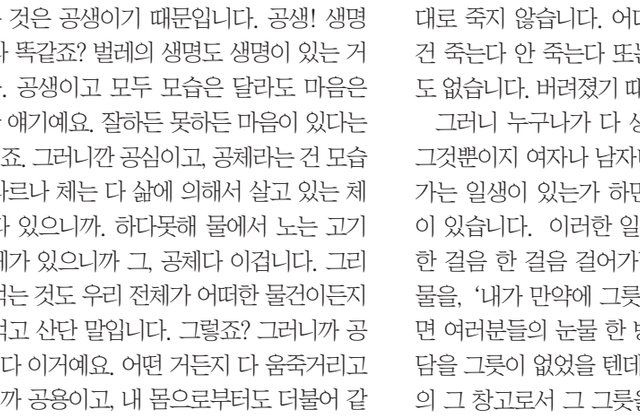
>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 또 잘못하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해 가면서
>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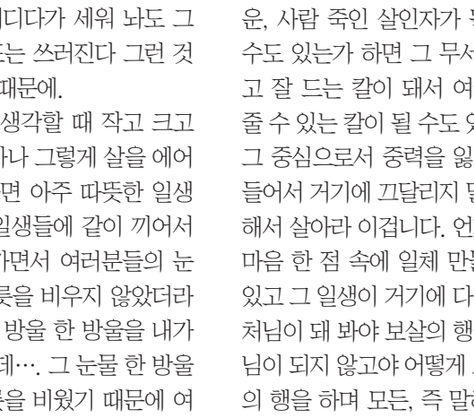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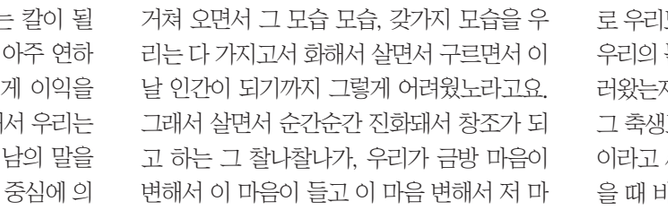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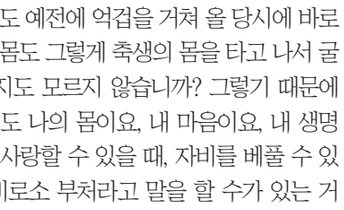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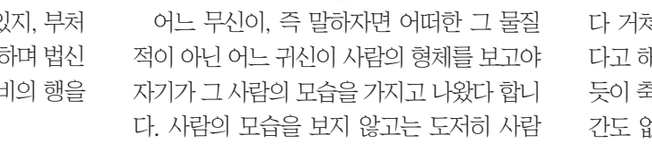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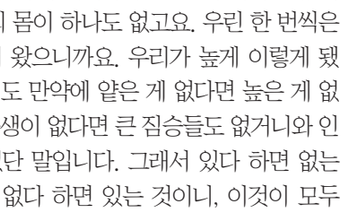
천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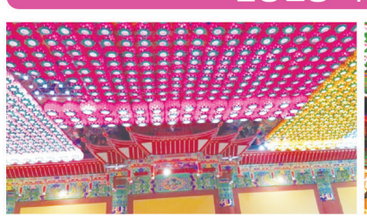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